

2 0 2 4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파!
Sharing Jesus!

VOL.25
2024 7-8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복음성가

지 407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 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 19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 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 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얻으시니
-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 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된 곳은 “바다와 막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이곳은 앞쪽은 홍해로 막혀 있고 왼쪽과 오른쪽으로도 진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말과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고 바다의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2.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때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전혀 질퍽이지 않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짐을 실은 수레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다 지나가기 전에 애굽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애굽 진영에는 흑암을 주셨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이었음에도 낮에 길을 가듯 홍해 바닥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즈음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기 위해 홍해 바닥 마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모두 건넌을 때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벽을 이루었던 물은 허물어져 바로의 군대를 덮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복음성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22-27

-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 하심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가지 않아 불평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홍해에서 나와 수르 광야를 지나 50km 정도 거리에 있는 마라로 이동합니다. 성인이라면 하루에도 걸어가지만,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포함한 200만 명과 많은 가축으로 삼 일이라는 긴 시간을 걷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심지어 물까지 떨어집니다. 마라에서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곳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쓴 물만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2.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도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고, 우리가 언제 애굽을 탈출하자고 말했냐고, 또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없는 위기의 순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늘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면 가족들과 나누어 보고, 불평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합니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은혜로 사는 삶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성가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13-31

-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 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 21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별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 26 옛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 29 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 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깻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갈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모두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제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어 저장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를 대비하거나 그것을 팔아서 다른 소득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하루하루 먹으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만약 사람의 힘과 능력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리, 서로가 경쟁하는 곳이 됩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심으로 서로 경쟁이 아닌 평등과 하나 됨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루씩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일 년 한 달을 살 수 있는 음식이 주어졌다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교훈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세요.

나의 구원자, 나의 승리자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성가

지 182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8-16

- 0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 0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군대장관인 여호수아를 불러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독특한 것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모세와 아론,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완벽한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이유는 그의 이름의 의미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의 등장을 통해 오직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구원자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함께 산에 올라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훌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아론과 훌은 해 질 때까지 양 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는 손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부 혹은 형제의 관계에서 서로를 도우며 힘이 되어 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브루타

1.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고 있나요?
2. 가정에서 내가 어떤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나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포도원 품꾼의 마음 자세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복음성가

지 244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1-16

- 0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 0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 0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 0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 0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 0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 0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 0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 0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집 주인은 포도원 일을 맡길 품꾼들을 찾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 일을 맡깁니다. 이른 아침(오전 6시 경)부터 제삼시(오전 9시), 제육시(오전 12시), 제구시(오후 3시), 제십일시(오후 5시)까지 품꾼들을 찾아 포도원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덧 날은 저물었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오래 일했던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2.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을 찾아오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일까지 맡겨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대가를 바라는 품꾼이 되지 말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 섬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복음성가

지 119장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17-28

-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 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열두 제자에게 자기 죽음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말씀이 짧았다면, 세 번째 말씀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로 표현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재판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많은 이방인 앞에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삼일”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2.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 사이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 청탁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청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인 다윗왕의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높은 지위, 많은 돈, 명예를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이며,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섬김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복음성가

지 21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1-11

- 0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0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무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0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0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0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0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 0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 0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 0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환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겹옷을 길에 뒀습니다. 이는 그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뒀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길에 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요 12:13). 종려나무는 풍요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곧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광적인 찬양과 환영의 외침은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입성 후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 누구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호와 찬양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외침은 언젠든 실망과 원망의 외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성이 소란스러움을 보고 누군가 무리에게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지난여름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이 진행되었던 국내외선교지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이지 않고 담대히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의 언어로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복음성가

지 6장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33-46

- 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 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 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알고
-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있더라





1. 예수님께 비유를 듣는 청중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농부들 비유를 들은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아채고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집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수확할 때, 집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또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똑같이 대했습니다.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돈에 눈이 멀어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후에 일어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버린 아들(버린 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케 될 것(머릿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보여줍니다.
2. 비유에서 주인은 세 번의 기회를 통해 그들이 열매에 합당한 소출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불순종과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교만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2.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화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어떤 대답도 존중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 귀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풍성함과 현숙함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에게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이름** 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녀이름** 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녀이름** 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자녀이름** 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6-19)

예수 그리스도! **자녀이름** 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이름** 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녀이름** 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으로 온 마음 다해 섬기시는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왕 되신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구별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닛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